

# “누구나 개성과 특성 있는데...”

개인차와 대기설법(對機說法)

사람은 서로 다르다. 얼굴 모습, 몸집, 몸무게, 지능, 적성, 성격, 사회성 등에 있어서 똑같은 두 사람은 없다. 교육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코드로 도와주는 작용이다.

다른 사람들을 학교라고 하는 기관에 수용하여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으로 육성한다면 이는 교육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글을 읽었기에 이에 소개한다.

한때 동물들이 학교를 다니는 일이 있었다. 그 학교의 과정은 달리기, 기어 올라가기, 날기와 헤엄치기로 구성되어 있었고, 모든 학생들은 위의 네 과목을 모두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오리는 헤엄치기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선생보다도 더 잘 할 수 있었으며 날기는 나뭇잎을 면할 수 있을 정도이나 달리기에는 정면 자신이 없었다. 그는 달리기 과목이 형편 없었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기 위하여 방과 후에 남았고, 또한 잘하는 헤엄치기도 등록을 취소해야만 하였다. 헤엄치기는 평균점수의 점수에 만족하고 등록을 취소한 후 달리기 연습을 계속

사람 사귀는데 능한 학생  
도덕적 행동의 모범생  
수학능력이 뛰어난 학생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  
교육은 개인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해야 한다

하였다. 평균이라는 점수는 무관한 성격이며 따라서 헤엄치기에서 평균을 맞는데 대하여 오리를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근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독수리는 문제학생으로 여겨졌으며 그에 대한 훈육은 대단히 엄격하였다. 그는 기어 올라가기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늦었으나 그가 나무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는데 있어서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토끼는 달리기에서 최우수생이었으나 하지 못하는 헤엄치기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만 정신 이상이 되어 학교를 그만 두어야만 했다.

다람쥐는 기어 올라가기에서는 뛰어났

김중서박사가 쓰는

## 불교와 교육 <12>



그림 · 이준석

으나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올때 날기 선생님이 날기의 초보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내려오도록 가르쳤다. 그래서 다람쥐는 나뭇가지에서 다른 나뭇가지로 날 때 너무나 애를 써서 그만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 때문에 기어 올라가기는 'C' 달리기에는 'D'의 성적을 받았다.

시 실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땅쥐들은 학교 간부들이 땅파기의 과목을 첨가 할 것을 거절하자 그의 자식들을 두더지에게 보내어 개인교수를 받도록 하였다.

학년말이 되자 헤엄치기는 잘하나 달리기, 기어 올라가기, 날기는 약간 흉내만 낼 수 있는 비정상적인 뱀장어가 학생대표로서 고별사를 읽었다.

대단히 흥미 있는 비유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교는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똑같은 특성의 인간으로 만드는 획일적 교육,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지적능력 중 일부인 암기력검사 결과를 점수화 하고 이 점수를 가감 승제하여 석차를 산출하는 교육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의 발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점수화의 문제를 생각해 보

### 부처님은 중생 근기따라 설법 달리해 획일적·주입식 학교교육 비판 당연

자. 국어에 0점을 맞았으면 그 학생은 말 한마디 못 하고, 글 한 줄도 읽지 못하는 국어의 백지 상태라고 보아야 할 터인데 그러한 상태란 있을 수 없다. 반대로 국어에 100점 맞았으면 그 학생은 국어 능력이 완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체육에 90점 맞고 음악에 80점을 맞은 경우 그 평균을 85점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지? 체육에서 재는 능력과 음악적 능력은 전혀 다른 능력인데 이 둘을 합쳐서 둘로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균 85점은 과연 무엇인지? 체육점수도 아니고, 음악점수도 아니며, 더우기 '체용'이라는 교과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마치 '90cm+80g'과 같은 논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의심없이 점수화하고 서열화하여 한 줄로 세우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 교육은 개인마다 다른 적성과 잠재적 능

력을 찾아내어 최대한의 자아실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이기 때문에 점수화하여 한 줄로 세울 수는 없으며 만일 줄을 세운다면 수십, 수백의 줄을 만들어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등상은 모든 학생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사람 사귀는데 능한 학생, 도덕적 행동의 모범생, 음악의 우등생, 수학능력이 뛰어난 학생,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은 모두 우등생이다. 따라서 교육의 방법이나 평가의 방법도 개인에 따라 달라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원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부처님은 문자 그대로 위대한 스승이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법하는 것을 달리 하셨다. 흔히 말하는 대기설법(對機說法)을 하셨다. 또한 똑같은 설법이라 하여도 개인마다 받아 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셨다.

(법화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삼초이목(三草二木)의 비유는 개인차를 설명한 적절한 비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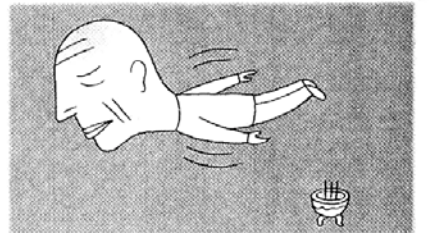
두터운 구름이 하늘 가득히 펼쳐져 있어서 삼천대천 세계를 구석구석 덮어 동시에 비를 뿌려 모든 초목, 총림, 약초의 작은 뿌리·줄기·가지·잎을 가진 것, 중 정도의 뿌리·줄기·가지·잎을 가진 것, 큰 뿌리·줄기·가지·잎을 가진 것을 적신다. 많은 수목의 큰 것, 작은 것은 그 성질에 따라 저마다 받아 들이는 물기가 달라서 동일한 구름에 의하여 비를 맞지만 각각의 종류 성질에 적합하게 자랄 수가 있다.

오늘의 교육은 걸맞으면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잎을 가진 풀이나 나무를 큰 뿌리, 큰 줄기, 큰 잎을 가진 풀이나 나무같이 자라게 하려고 잡아 당기고, 때에 따라서는 짓밟기도 한다. 또한 풀이나 나무가 '각 종류의 성질에 적합하게' 자라도록 가

르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자라도록 강요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중생들의 능력, 성격, 소질에 따라서 법문 내용을 달리함을 말한다. 팔만사천이라고 하는 수치는 '수없이 많음'을 의미한다고 볼 때 개인자에 알맞은 교육방법의 제시라고 볼 수 있다. 흔히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불법을 가르칠 수 없다", "당신은 너무나 활동적이기 때문에 불법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너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불법을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돈을 너무 밝히는 성질이 있으므로 불법을 모를 것이다" 등의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분명히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셨다. 즉 대기설법(對機說法)을 실천하셨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 생활불교용어



하릴없이 빈둥대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한다. 일하지 않고 먹으면서 이것 저것을 참견하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한다. 또 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없이 허풍을 떨며 다니는 사람도 건달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백수건달을 싫어하는 것이다.

건달의 어원은 불교의 건달바(乾達婆)에서 유래되었다. 건달바는 제석천(帝釋天)의 아악(雅樂)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 건달은 고기나 밥 등의 음식은 먹지 않으며 향(香)을 먹고 산다. 건달은 허풍을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즐긴다. 그러나 건달은 건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습성을 갖추고 있다.

건달은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유(中有)'의 인간

### 건달(乾達)

### 날아다니며 제석천 아악 관장 일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

이다. 불교에서는 '사유(四有)'라 하여 생명의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고 있다. 새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단계를 '생유(生有)' 태어나서 살고 있는 생명을 '본유(本有)'라 하고, 죽는 것은 '사유(死有)'라고 한다. 사람은 죽은 뒤 중유를 거쳐 본유 때 지은 업(業)에 따라서 생명을 받는다. 네 단계의 생(生) 중에 중유의 생을 건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건달은 역시 확실성이 전혀 없는 불안한 존재이며 허풍을 떠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또 경전에서는 건달을 소재로 인생의 무상(無常)함을 드러내고 있다. <대지도론>은 무상한 인생을 '건달바의 성(城)'에 비유하며, 인생은 허깨비와 같으며 산을 올리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건달이 쌓은 성이란 쉽게 말해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으로 건달의 성이란 신기루이든 모두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애착하고 욕심부린 것들은 마치 건달의 삶과 행위와 행위의 대가처럼 무상한 것이다. 불자의 도리는 세상이 이런 것임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안면기형·안과(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주간불교 1997년 11월 25일 화요일

### 인터뷰

### 건강식품 3종 출시 시연스님, '원기대보탕' 등



○ 대구여래한방병원장 시연스님 대구 여래한방병원 원장이며 최근 건강식품 '보로화정'을 특허로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연스님이 이번에 또 다른 건강식품 3종류를 상품화시켜 시판하고 있다.

이번에 시판하는 건강식품은 '원기대보탕'과 '보혈청신탕', '한방식초'이다. 시연스님은 "원기대보탕은 중국 고대 신선도의 수행자들이 원기를 도우기 위해 먹었던 것으로, 계과 같은 구기자 대추 등 30여 가지 한약재를 써서 만든다"면서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품·신경영 화제

### 원기대보탕(元氣大補湯)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신선도(神仙道)의 수행자들이 원기(元氣)를 도우기 위해서 30여가지의 한약재를 써서 만든 '원기대보탕'은 몸의 원기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이번에 시연스님이 비전된 명약의 처방을 얻어 약을 만들게 된 것은 장으로 기쁜일이다.

▶ 내용량 : 60봉지(2個月분)  
▶ 용법 : 1일 1봉지(아침식후30분복용)

□ 가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

특이한 자연향료 냄새와 염성된 우리농산물(약초)로 정성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험준비생, 참선수행자, 노약자, 건강한 사람도 꼭 필요한 명약입니다.

### 한방식초(韓方食醋)

검은쌀(黑米)에 농주(農酒)를 붓고 상향 버섯, 검정깨...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한방식초'는 명문대가(名門大家)의 비전된 신비의 명약으로 정력을 증진시켜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한 난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약을 복용하던 누른 대변이 나오는 것이 치료효과를 확인 시켜주는 현상이다.

▶ 내용량 : 1.8ℓ (약 6되)  
▶ 용법 : 1일 2스푼(공복시 복용)

□ 가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

### 보혈청신탕(補血清神湯)

우리나라에서 이공난생세의 증가에서 대대로 비전된 명약인 '보혈청신탕'은 보혈강장(補血強壯) 및 혈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을 맑게하여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내용량 : 4.2ℓ (약 2되)  
▶ 용법 : 1일 1봉지(복용(공복시복용))

□ 가격 : 30만원 (2개월분)

입금구좌 : 우체국 704148-0019991

여래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